



자신의 이름을 딴 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22일 미술관에서 만난 오승우 화백은 기증 작품을 관람하며 많은 사람이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안=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30년 함께한 피붙이들 세상에 내 놓습니다”

무안 오승우미술관 개관 앞두고 만난 오승우 화백

“30년간 함께 웃고 울었던 피붙이 같은 그림들입니다. 딸 시집 보낼 때 보다 더 서운한 마음으로 작품을 기증했지만 누구든지 마음껏 즐길 수 있다면 저 또한 행복할 것입니다.” 사회 환원도 습관이라고 했다. 60년 넘게 그림을 그려온 노 화백이 생사를 때어내는 마음으로 작품을 기증하면서 들려준 말이다. 22일 오후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무안군오승우미술관에서 만난 오승우(81) 화백은 평생 그려온 작품 179점, 관련서적 500권, 화구 등 미술품 300점을 조건없이 내주고도 오히려 행복하다고 했다. 서울에 사는 오 화백은 미술관의 정식 개관(24일)에 앞서 기증작을 직접 전시장에 걸기 위해 이날 이곳을 찾았다. 오 화백은 한국 인상주의의 선구자 오지호 화백의 장남이며,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인 국내 대표 작가다. 변변한 전시 공간 하나 없던 무안군에 57억 원을 들인 번듯한 미술관이 들어서게 된 것은 오 화백의 아낌없는 작품 기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안군은 지난 2003년 예산을 마련하고, 미술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건물을 채울 작품이 전혀 없었다. 오 화백과 만나 작품 기증을 약속 받은 뒤에야 미술관 건립의 첫 삽을 들 수 있었다. 이번 소장품을 탐내는 컬렉터들도 많았다.

이번 기증작에는 ‘십장생도’ 연작 60여 점과 ‘한국의 산’ 시리즈, ‘동양의 근원’ 연작 등 30년 동안 보관했던 그의 대표작이 망라됐다. 그의 작품 가격이 호당 50~100만원에 형성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이번 기증 작품의 거래가격은 최대 1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아내는 “자식이 달라고 해도 안주던 그림을 막 퍼주니 ‘치매에 걸렸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회상했다. 그는 지난 2004년에도 목포시에 100점을 기증했고, 지난해에는 서울시립미술관에 도



무안 오승우미술관 전경.

■ 오승우 미술관은?

오승우미술관은 오 화백의 기증작을 상설 전시하고, 일 년에 3~4차례 기획전 을 열어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또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관 체험프로그램, 군민 대상 미술 강좌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무안군은 유명 미술인을 초청 하는 특별강좌와 세미나 등 미술사를 소

개하고 연구하는 기능도 강화해 명실상 부한 무안의 대표 문화 공간으로 육성한다. 이번 개관기념전에는 오승우 화백의 ‘한국의 산’ ‘동양의 근원’ ‘십장생도’ 연작 등 기증작 170여점을 선보인다. 한편 무안오승우미술관은 연면적 2700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됐다. 3개의 전시실과 수장고, 세미나실, 아트숍을 갖추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딸 시집 보내는 마음이지만 180여점 기증 사람들이 감상해야 감동주는 예술품 되는 것”

35점을 내줬다. “미술품은 암실에서 벽만 보고 있으면, 더 이상 예술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감상해야 비로소 감동을 주는 예술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술의 감동을 나누는 것은 선친의 뜻입니다.” 기증을 많이 하다보니, 작품이 수북이 쌓여 있던 서울 서대문구 흥농동의 작업실은 텅 비었다. 그는 요즘도 새벽 2시에 일어나 운동을 한 뒤 하루 8시간 가량 붓을 잡고 있다. “작업실에 작품이 많을 때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더니, 이제는 텅 비어 쓸쓸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미술관 건립 과정에 아픔도 많았다. 일부 주민과 군의회 의원들이 “타지(화순) 출신 작가 이름의 미술관은 안된다”고 반대, 5년여 동안 미술관 건립에 차질을 빚었다. 지난 2006년 9

월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최근에는 뒤늦게 문을 열게 된 것도 명칭 문제 때문이었다. “영토에는 국경이 있지만 예술에는 벽이 없습니다. 출생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은 공적처럼 이곳 저곳을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합니다. 명칭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예술가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안군이 오 화백의 순수한 기증 정신을 높이 사 명칭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오는 24일 정식 개관식을 열게됐다. 또 오는 5월

24일까지 오 화백의 기증작을 선보이는 개관 전시도 연다. “10년 단위로 작품 주제를 바꾸고 있는데 십장생도 연작이 10년이 돼, 새로운 주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새로운 작품이 쌓이면 개인 전도 열 계획입니다. 고향 사람 모두가 즐겁게 머물다가는 행복한 미술관이 될 것입니다.” 문의 061-450-5240. /무안=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다섯가지 빛깔의 모던 발레

모던발레페스티벌 25일 문예회관

“다섯가지 빛깔의 모던 발레.” 무대 위에서 무용수로 뛰는 것과, 아이디어를 짜고 음악과 의상을 선정해 작품을 만드는 것은 전혀 색다른 작업이다. 광주시립무용단의 중견 무용수들은 몇년전부터 직접 안무가로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공연해 왔다. 2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2011 모던 발레 페스티벌’ 역시 다채로운 소재의 작품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발레리노 김선돈씨가 안무한 ‘Come true’는 동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모티프로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코믹발레다. 조성미씨가 안무한 ‘우 + ♫ = ?’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만들 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오윤환, 이승윤, 강진구씨 등이 출연한다. ‘Mother’는 노윤정씨가 안무한 작



품으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을 그리고 있으며 구윤지씨와 최윤정씨가 함께 작품을 짠 ‘지젤 트와르’에서는 속명파도 같은 아름답고 치명적인 사랑이야기가 그려진다. 그밖에 정정은씨의 안무 작품인 ‘Adiction’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메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문의 062-522-87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마당놀이 30년 걸작 대잔치

26일 염주체육관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극단 미추의 마당놀이는 국내 공연계를 대표하는 브랜드다. 다양한 우리 고전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 노래와 춤으로 뛰어난 마당놀이는 지난 29년 동안 전국 순회 공연을 통해 매년 20만명 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인기를 모 으었다. ‘2011년 마당놀이전-마당놀이 30주년 걸작 대잔치’가 26일 오후 8시·7시30분 광주염주체육관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공연은 ‘마당놀이’ 하면 떠오르는 인물인 윤문신·김성녀·김



종영씨의 고별무대라는 점에서 놓치기 어렵다. 무대에 올라가는 작품은 지금까지 미추가 선보였던 ‘춘향전’, ‘십장생’, ‘이춘풍전’, ‘홍길동전’ 등 마당놀이 대표적 레퍼토리를 재구성한 작품이다. 해학과 풍자가 어우러지고 2010년 대한민국 풍경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작품 속에 그대로 들어난다. 티켓 가격 4만 5000원~2만 5000원. 문의 1588-41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미디어센터 24일 ‘울지마, 톤즈’ 상영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오는 24일 오후 7시 2층 다목적홀에서 고 이태석 신부의 감동 휴먼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를 상영한다. TV로 방영되기도 했던 영화 ‘울지마, 톤즈’는 의사로서의 평탄한 삶을 포기하고 사제의 길을 택해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땅 톤즈에서의 고 이태석 신

부의 이야기를 담은 휴먼 다큐멘터리다. 고 이태석 신부는 톤즈에서 수단의 오랜 내전으로 가난과 질병으로 얼룩진 덩카족을 위해 병원과 학교를 짓고 아이들에게 총 대신 악기를 가르치다 지난해 1월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문의 062-650-0326.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L'Ecole du Vin

‘에끌 뒤 뱅’ 입문과정 : 6기 수강생 모집

‘광주 와인 문화 일인지 금수장관광호텔’에서 진행되는 와인 스쿨 ‘에끌 뒤 뱅’의 입문 과정이 오는 3월 8일(화)에 개강합니다. 이번 강좌는 매주 화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평소 와인을 배우기 희망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강좌를 통해 와인이 주는 큰 행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와인파트너 홈페이지(www.winepartner.c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 2011년 3월 8일(화) 부터 총 4회 ; 화요일 오후 7시 50분-10시
 장소 : 금수장관광호텔 (계림동,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사정에 따라 강좌 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원 : 선착순 18명 / 강의비 : 20만원 문의 : 금수장관광호텔 062-525-2111

Wine partner
와인파트너

http://cafe.naver.com/winepartner

금수장관광호텔

강사: 권 홍 식

- 금수장관광호텔 전무 / 소울리에
- 한국소울리에협회 운영위원
- 한국소울리에학회 상임이사 (소울리에 자격시험 검증, 위원)
- IBWE(인터네셔널 보르도 와인 에듀케이터) 인증 와인 강사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상무점	하남점
1관 평양성 (12세)/글러브 (전체)	1관 라퐁젤 (전체)/생텀 (15세)
2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2관 조선명탐정 (전체)
3관 만추 (15세)	3관 아이들 (15세)
4관 만추 (15세)	4관 라퐁젤 (전체)/아이들 (15세)
5관 걸리버여행기 (전체)/생텀 (15세)	5관 서유기리턴즈(전체)/평양성 (12세)/글러브(전체)
6관 라퐁젤 (전체)/라퐁젤/걸리버여행기 (전체)	6관 걸리버여행기 (전체)/만추 (15세)
7관 아이들 (15세)	7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8관 127시간 (15세)	8관 언노운 (15세)/127시간 (15세)
9관 조선명탐정 (12세)	9관 조선명탐정 (12세)
10관 언노운 (15세)	10관 만추 (15세)

조조 영화하면 어떠세요? /호남최대주자장 /www.cinuso.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관	최고급관
1관 아이들 (15세)	
2관 만추 (15세)	
3관 조선명탐정 (12세)	
4관 127시간 (15세)	
5관 라퐁젤 (전체)/생텀3D (15세)	
6관 언노운 (15세)	
7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8관 친구와연인사이 (18세)/만추 (15세)	
9관 아이들 (15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CINUS

1관 만추 (15세)
2관 언노운 (15세)/글러브 (전체)
3관 127시간 (15세)/평양성 (12세)
4관 라퐁젤3D (전체)/생텀3D (15세)
5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6관 조선명탐정 (12세)
7관 아이들 (15세)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o.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

구. 런던악국사거리 1544-0600

북구보건소 건너편 1544-0070